



[산업] 5G NSA와 SA LTE와 공존이나 단독이나 차이 06



Life

[바이오] 삼바에피스 유럽서 매출 8510억 '신기록' L2



고급호텔 된 옛 서울역 문화·역사 담긴 호텔사회로 '체크인'

3월 1일까지 '호텔사회' 기획전 열려 과거부터 미래까지 역사·문화 담아

'호텔사회' 기획전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 284 주관으로 3월 1일 까지 문화역서울284(옛서울역 역사)에서 열린다.

'호텔사회'는 철도교통과 함께 발달한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가 가진 기능적 공간의 교차지점에서 전시·공간 작품을 통해 호텔이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공간의 구분에 따라 전시를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문화역서울284에 입장하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건 '익스프레스 284 라운지'다.

중앙홀에 들어서면 거대한 화강석 기둥 사이로 고급호텔 로비를 연상케 하는 대형 계단이 보인다.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붉은색 계단과 커튼 뒤로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호텔사회'는 로비, 라운지, 객실, 수영장 등 호텔 속 상징적 공간에 기능적 속성을 교차시키며 여행, 여가, 유흥, 식문화 등 서구 새로운 문화 도입과 확산과정을 보여준다.

객실 안쪽 '202호실: 문'은 호텔 공간 속 다양한 문들을 촬영한 영상들이 계속 상영된다. 202호실에선 김노암, 신나라 씨가 호텔 공간 속 다양한 문들을 촬영한 영상이 나오고 박준혜 작가가 설치한



'호텔사회 Hotel Express 284'에서는 경성의 중앙역이자 옛 서울역이었던 지금의 문화역서울284가 호텔 284로 탈바꿈한다. /이민희 기자

프리저브와 나뭇가지 소재들이 바닥에 자연스레 흩어져있고 양쪽 벽엔 어두운 나무색을 연상케 하는 브라운 천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려 영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연스러운 허브와 플라워향이 독특하고 그 공간에 더 머무르고 싶어지게 만든다.

객실 '205호실: 호텔, 루시드 드림'은 20~21세기 호텔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수많은 차원의 시간여행자들 이야기를 타임캡슐인 호텔 입장에서 재 해석한 설치작품이다. 노마드 시대 오아시스 같은 호텔 컨셉으로 연출된 곳으로 한수지, 이경민, 박준혜 작가가 참여했고, 영상엔 김기노, 김

노암, 신나라, 임지연, 박경숙 씨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 '오아시스-폴·바·스파', '이발사회', '여행·관광 안내소', '호텔사회 아카이브', '그릴홀', '살롱 도넛' 등이 호텔 각 공간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우리나라 호텔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아카이브는 물론 과거와 현재, 미래 시공간을 넘나들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드는 융합 장소로서 호텔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들을 살펴보고 체크아웃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시는 3월 1일까지 이어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관람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여행 단신

프린세스크루즈 특별 마스크트 '체리베어' 공개

프린세스 크루즈가 2020년 봄 시즌을 앞두고 특별 마스크트인 '체리 베어(Cherry Bear)'를 공개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승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야생 곰'에서 영감을 받아 프린세스 크루즈 설립자(Stanley McDonald)의 이름인 '스탠리'라는 곰 마스크트를 처음 선보였으며, 전세계 항해 일정에 투입되어 공식 여행 안내자 및 프린세스 크루즈의 각종 서비스에 감초 역할을 하며 큰 호응을 얻은 예정이다.

브로드웨이 인바운드 뮤지컬 신작 5선 소개

브로드웨이 컬렉션은 뉴욕을 방문하는 뮤지컬 팬을 위해 올해 새로운 뮤지컬 신작 5선을 공개한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로 헨리 8세의 여섯 왕비들의 이야기 '식스', 영국의 전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스펜서에 관한 '다이애나'와 마이클 잭슨의 일생을 그린 'MJ 더 뮤지컬'이 공연된다. 이와 함께 영화 원작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와 등장인물을 새롭게 각색해 재상연예인 뮤지컬 '컴퍼니' 등 기대를 모으는 작품들이 오는 3월부터 관객에게 공개되며, 티켓 예매를 상연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트럼프호텔 스코틀랜드서 골프·힐링 동시에

트럼프 턴베리 스코틀랜드에서 골프와 힐링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2020년 윈터 브레이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초대 왕의 이름과 정신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진 킹 로버트 더 브루스 코스(King Robert The Bruce)에서는 턴베리의 멋진 해안선과 성의 유적, 등대 등의 그림 같은 전망을 조망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트럼프 턴베리.

케이알티여행사 '청량 여행지' 3곳 추천

KRT여행사가 속이 뻥 뚫리는 청량 여행지를 3곳을 추천해왔다. 멕시코 칸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이다. 그 중 알마티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빅 알마티 호수다. 알마티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호수는 선명한 에메랄드 색 물빛을 자랑한다. 해발 2500m 지점에 위치해 여름에도 선선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이기도 하다. /이민희 기자

패스 하나로 33개국 'OK'... 봄바람 맞으며 유럽여행을

레일유럽 2020년부터 여행가능국 확장·열차 추가

세계 1위 유럽 철도 상품 배급사인 레일유럽이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유럽 기차 여행 소식을 최근 발표했다. 유럽 기차 여행의 필수품인 유레일 패스와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여행 가능국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무료 산악열차가 추가됐으며 보탈펜 익스프레스 및 빙하특급 등 스위스 경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파노라믹 열차도 업그레이드된다는 소식이다.

패스 한 장으로 다양한 유럽 국가의 국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유레일 글로벌 패스'는 여행 가능국이 33개로 늘어났다. 리투아니아에 이어 올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추가된다. 이로써 유



보탈펜익스프레스. /레일유럽

레일 글로벌 패스로 발트 3국 여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에스토니아에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유람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유레일 글로벌 패스 소지자는 해당 유람선 예약 시 최대

50%의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패스가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있는 만큼 여행 일수도 늘어났다. 1개월 내 3일, 5일 또는 7일 중 원하는 여행일 수 만큼 골라 기차를 탈 수 있는 선택사용 패스 옵션 중 1개월 내 4일 옵션이 새롭게 추가됐다. 스위스 전역의 기차, 버스, 유람선 등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00여 개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 역시 새해부터 혜택이 변경된다. 리기와 슈탄저호른, 슈토스 등의 산악열차는 무료로 유지되고 루체른 호수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클레벤알프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전 혜택에 포함됐던 쉴트호른은 패스 소지자의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희 기자

벨기에, EU 취업 폭 넓어... 신흥 유학국가로 부상

유럽 국가 중 세계 100대 대학 랭킹 수 1위

치열한 입시 경쟁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시야를 넓힌 한국 학부모와 학생이 해외 유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중 공학과 기술 분야, 생명 과학과 화학 분야, 그리고 유럽연합(EU) 기구 취업 폭이 넓은 벨기에가 신흥 유학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벨기에에는 유학에 있어서 누구나 고려할 만

한 사항으로 꼽는 입학 방법, 향후 진로, 취업, 학비, 안전 문제 등에 만족할만한 답을 내놓고 있다. 벨기에에는 EU 중심 국가로서 장차 EU 시장 공략을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벨기에에는 1100만 명의 비교적 적은 인구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인구 대비 로이터 선정 세계 100대 대학 랭킹 안에 많은 우수대학 이름을 올렸는데, 그 수치를 계산하면 유럽 국가 중 1위다.

훌륭한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비싼 가격은 필수라는 편견을 깨는 나라가 벨기에이기도 하다. 학비와 생활비에 있어서는 외국 학생 한 명당 1년 학비가 대체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이며, 생활비는 한달 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취업 폭 또한 매우 넓은 편으로 많은 외국 유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가기보다는 벨기에 혹은 유럽 현지에서의 관련 분야 취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추세다. 30세 이하의 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졸업 후 벨기에에서 최장 1년을 추가로 머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여유있게 세워 볼 수도 있다. /이민희 기자